수능 상황실·부정행위 방지팀 구성

시·도교육청, 수능체제 본격 가동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2008학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수능상황실을 설치, 교통소통 대책 및 각종 사고 예방책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수능시험 체제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4면〉

30개교 677개 시험장에서 1만8천317명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듣기평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를 설치·점검했다. 또 항공기와 기차, 자동차,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청 측은 학부모·학생·교사 등 학교당 5명으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문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경찰·교육청 관계자·일선 고교 교감·진학담당 교사 등 22명으로 부정행위 방지대책팀을 구성했다.

6개 지구 43개 시험장에서 1만5천993명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전남도교육청도 12일부터 도교육청 4층에 수능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지 인수인계와 보관 및 운송, 시험 당일 상황점검 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에는 수능 시험장 파견관 회의를 갖고 시험장에서의 돌발상황 등에 대비한 최종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 등 7명으로 부정행위 방지대책반을 구성했으며 경찰·지역 교육청 담당자·고교 교감 등 17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은 시험 스트레스로 큰 부담을 겪게 될 수험생들이 오는 15일 큰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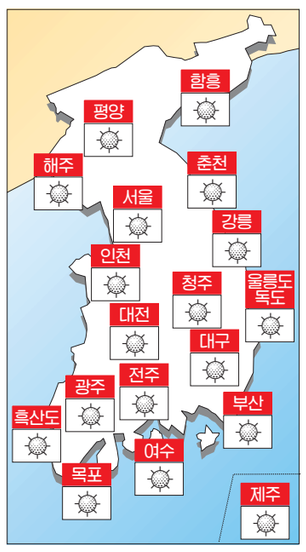
주암호 사랑 걷기대회 지난 10일 보성군 복내면에서 열린 '주암호 사랑 걷기 대회'에 참석한 (사)주암호보전협의회 회원과 '빛고을 스카우트' 대원 등 500여 명이 주암호 상류를 따라 걷고 있다. 이날 행사 후엔 '환경 O·X 퀴즈'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보성=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아침 찬바람

대체로 맑겠으나 쌀쌀하겠다.

11월 12일 (음 10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4~17℃
목 포	맑음	7~17℃
여 수	맑음	8~16℃
완 도	맑음	7~17℃
구 례	맑음	2~17℃
해 남	맑음	3~17℃
장 흥	맑음	2~17℃
고 흥	맑음	4~17℃
순 천	맑음	1~17℃
영 광	맑음	4~17℃
진 도	맑음	6~18℃
전 주	맑음	2~17℃
남 원	맑음	-1~17℃
흑산도	맑음	10~14℃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2:52 15:37 썰물 08:15 20:55
여 수 밀물 10:13 22:08 썰물 03:37 16:17

▲해뜸 07:03 ▲해짐 17:29 ▲달뜸 09:11 ▲달짐 18: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 씨						
최저/최고	3/17	6/16	5/16	4/15	5/16	4/17

광주, 수능일 시내버스 110회 증회

30개 학교 경유 28개 노선

광주시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시내버스를 110회 증회 운영한다.

증회 노선은 수능이 치러지는 광주시내 30개 학교를 경유하는 28개다.

시는 이날 등교시간인 오전 6시~8시10분에 차량을 탄력적으로 집중 배차한다. 또 고사장 입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험장 200m 앞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시는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전 8시40분~8시53분(언어 영역), 오후 1시10분~2시30분(외국어 영역)에 수능 시험장 인근을 지나는 버스와 택시 등은 경적을 자제하도록 할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수능 시험 당일 관공서·국영기업체·금융기관·대기업·각급 학교 등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까지로 1시간 연기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개인적 연구 활동은 공무원 인사기록에 기재 못해"

'판사를 죽이고 싶다' 어떤 소송이었나

재판에 불만을 품고 '아! 현직 판사를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전남대 여수캠퍼스 류모(60) 교수의 소송은 과연 어떤 소송이었을까? 〈본보 11월9일자 7면〉

류 교수는 지난해 5월 광주지방법원에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인사기록카드 기록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2001년 1월12일~2002년 1월11일 파견근무'라고 기재된 내용을 '2001년 1월12일~2003년 7월31일 방문교환교수'로 변경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류 교수는 2001년 1월12일~2002년 1월11일까지 미국 일리노이대학에 1년간 파견근무한 뒤 귀국했고, 이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일리노이 대학을 방문·연구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2001년 1월12일~2003년 7월31일 2년6개월간의 '방문교환학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류 교수는 이를 근거로 대학 측에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정식 인사발령을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 연구를 위해 일리노이대학을 방문, 연구활동을 한 경우는 인사기록카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류 교수의 소송은 요건이 흠결돼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다른 형사·민사소송과 달리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행정부가 정해놓은 소송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류 교수의 소송은 1심·2심·대법원에서까지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 류 교수는 그러나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소송 사건 처리과정에 관련된 전남대 총장과 교수 3명, 재판부·변호사를 상대로 모두 6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당시 광주지법 행정부장이었던 선재성 순천지원장은 "현직 대학교수가 정당한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섬뜩한 표현을 쓴 내용의 책을 발간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사의 명예 훼손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항 12시간 업무 마비

물류전산망 장애 화물처리 못해

전국 항만의 물류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의 전자문서중계(EDI)전산망이 지난 10일 새벽 4시께 끊기면서 수출입 화물 반출에 필요한 각종 전자문서의 전송이 전면 중단, 광양항의 화물처리가 12시간 동안 마비됐다.

이 사고는 (주)케이엘넷이 입주한 건물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전원이 끊기면서 발생했다고 한국물류정보통신 측은 밝혔다.

이번 전산망 장애사고로 인해 광양항과 부산항을 비롯 전국 항만의 화물 반출입에 필요한 신고서 접수 등 관련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항만물류수송 시스템이 마비돼 수출입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사고발생 후 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을 관리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자체전산망을 가동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부두마다 수작업으로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는 바람에 물류에 차질을 빚었으며, 전산망이 복구된 이후에도 밀린 화물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한국물류정보통신 측은 사고발생 12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께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고 추가 전산장애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광양항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바람에 일부 화물 운송과 선적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주말인 10일엔 물동량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신호등·교통섬 설치 … 30%나 감소

⑦ 사고 이렇게 줄였다

지난 한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가 광주·전남지역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을 한 후 사고 발생률이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시·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36곳에 대한 개선사업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9건으로 지난 2005년 같은 기간 256건보다 30.1%(77건)가 줄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5명·278명으로 지난 2005년 7명·370명보다 각각 28.6%(2명)·24.9%(92명)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광주시 남구 주월동 미래아동병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건(부상자 20명). 공단 측은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호등 위치를 백운 교차로 방향으로 20m 정도 앞당겨 조정하고 높이 1m·길이 10m의 무단횡단 펜스를 설치했다. 올해 이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3건(부상자 15명)으로 시설물 개선 전보다 31.6% 줄어들었다.

광산구 송정동 주안병원 앞 횡단 보도의 경우 신호등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가 11건(올해 6건·2005년 17건)이,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 앞 사거리는 교통섬(차량 주행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을 만든 뒤 5건(올해 7건·2005년 12건)이 줄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홍보팀 이기형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이 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없인 아무 의미가 없다"며 "무엇보다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